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5. 3. 2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 (No. 444)

유럽

- **우크라이나, 원격 폭탄테러 배후로 러시아 지목**
 - 3.13 언론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최근 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였으며, 러시아가 돈을 벌려는 10대 소년들을 모집해 인간폭탄으로 이용했다고 보도
 - ※ 한편, 생존한 15세 소년에게는 △테러 가담 △폭발물 제조 혐의가 적용될 전망
- **英, 테러 관련 체포 5년 만에 최고치 기록**
 - 3.17 영국은 '24년 테러 관련 범죄로 체포된 인원이 지난 4년간 체포된 인원의 수보다 더 많으며 총 248명을 체포하였는데 이는 '19년 이후 단일 연도 체포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보도

미주

- **美, 테러단체 지지 유학생 비자 처음으로 취소**
 - 3.15 언론은 ↑ 美(97.10), 英(01.3), EU(03.9) 테러단체 지정 美 정부가 테러단체(하마스) 지지 시위를 주도한 외국인 학생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테러리스트 등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위험인물 파악을 위해 SNS 및 개인정보 심사를 강화한다고 보도
 - ※ 美 연방이민서비스국(USCIS)은 이민 신청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,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SNS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할 예정
- **美, 후티 반군 공격능력 상실 때까지 공습 의지 발표**
 - 3.17 언론은 미국이 지난 15일 예멘의 도시(사나, 알바이다, 라다 등)을 공습한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,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을 공격할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
 - ※ 美 국무장관 「루비오」는 15일 공습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“이것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지 말라고 이란에 보내는 메시지”라고 부언

중 동

- 시리아, 헤즈볼라가 自國 군인 3명 납치·처형 주장
 - 3.17 시리아 국방부는 레바논의 親이란 무장정과 헤즈볼라 대원들이 自國 군인 3명을 납치 후 레바논에서 처형했다며, “긴장을 고조시키는 헤즈볼라의 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”라고 경고
 - ※ 헤즈볼라, 레바논·시리아 국경에서 일어난 사건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반박
- 이스라엘, 가자지구에 수십 차례 공습 가해 최소 320명 사망
 - 3.18 언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해 320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하며, 이번 공격은 휴전이 발효된 1월 19일 이후 가해진 가장 큰 공격으로 위태롭던 휴전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평가

아 테

- 파키스탄 叛軍, 열차 승객 수백 명 인질로 납치
 - 3.12 언론은 발루치스탄 해방군이 카이버팍툰콰주로 향하던 열차를 납치한 뒤 수감 중인 정치범과 독립운동가 등을 48시간 內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처형할 것이라 협박했다고 보도
- 인도, 제 14차 ADMM-Plus 테러방지 회의 개최 준비 中
 - ↑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-Plus(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플러스)
 - ↑ Experts Working Group(전문가 실무 그룹)
 - 3.16 언론은 이번 회의가 대테러 EWG의 '24 ~ '27년 활동 주기이며 테러와 극단주의 위협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세미나 등 계획 수립을 위해 뉴델리에서 개최(3.19~ 20 / 2일간) 될 예정이라고 보도
 - ※ EWG, ADMM-Plus 內 협력을 담당하는 실무 조직이며 ASEAN(10개국) 1개국과 파트너(8개국) 1개국이 3년 주기로 공동 의장을 맡아 활동을 조율
 - ↑ 제 14차 회의는 인도와 말레이시아가 전담
- 韓, 대통령 탄핵 선고 대비 헌법재판소 보안 강화
 - 3.16 언론은 경찰이 헌법재판소 보안 강화를 위해 담장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 차량·병력을 보강하는 등 선고 전후로 헌재 주변 100m를 '진공상태'로 만들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↑ 두 겹 이상의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하고 전담 경호대 및 형사·특공대 전진 배치
 - ※ 또한, 서울 지하철 공사는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안국역을 전면 폐쇄하고 시청역·경복궁역·여의도역 등은 무정차로 운행할 예정

아프가니스탄, 카불市 시크교 사원에서 총기난사

- '20.3.25. 아프가니스탄 수도에 있는 시크교* 사원(구르드와라)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여 기도하고 있던 민간인 25명 사망·8명 부상
 - * 시크교는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로 교인들이 무역 등을 이유로 아프간에 정착하여 생활 중이나,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음
 - 이들은 건물 내로 침입하여 총을 발포하며 80여명의 인질을 납치한 채 보안군과 총격전을 벌이며 저항하다, 6시간 만에 전원 사망
- 당초 아프간 정부는 공격 배후로 탈레반을 지목하였으나, 이후 ISIS-K가 자체 통신매체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밝히며 배후로 자처
 - ※ 인도 내에서 이슬람교가 가장 널리 퍼진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각종 박해를 받고 있어, 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언급
- 세계 각국에서는 同 테러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으며, 특히 인도 정부는 아프간 시크교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강화
 - 이후에도 테러 위협이 지속되어 시크교도들이 인도나 서방국으로 탈출, 아프간 내 시크교 공동체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

테러 단체

< 아프간 내 활동 테러단체 >



- ① 알카에다
 - (목표) 쏘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
 - (활동수법) 對서방 자폭테러 및 테러선동
- ②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(ISIS-K)
 - (목표)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 - *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를 지칭하는 옛 지명
 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軍警·다중운집 장소 대상 테러, 지방에서는 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